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 타격경기대회 - 2017》을 지도하시였다



## 1 면에서 계속

경기대회는 우리 인민군대는 결코 가만 있지 않을 것이며 우리 식의 성전, 우리 식의 보복타격으로 맞받아나갈 놀음을 단숨에, 단때에, 단방에 가져들이 죽탕쳐 버리고 분별없이 날뛰는 침략자들에게 전폭총대맛, 전폭전경맛을 똑똑히 보여 주고야말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적필승의 전투적위력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경기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미더운 전투원들은 백두산초망이의 발흥으로 온 남녘 땅을 거머쥐고 적들의 금소마다에 번개처럼 비수를 들이박을수 있는 진짜배기

싸움군들로, 전투비행사들은 일수의 본거지를 송두리채 뒤집어버릴수 있는 용감무쌍한 붉은 매들로 역세게 준비되었음을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하시면서 경기대회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돐을 맞이하고있는 뜻깊은 시기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기대회-2017》은 인민군장병들이 자라게나 조국통일을 생각하며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싸움준비현상을 위해 훈련과 로고를 바쳐온 우리 수령님께 드리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충정의 선물이

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근 인민군대에서 당의 훈련혁명 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례없는 빨찌산식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고 하시면서 특히 한가지 훈련을 하면서도 여러가지 훈련목적을 달성할수 있게 하는 훈련의 다각화를 중요하게 틀어쥐고나가고있는것은 아주 좋은 훈련기풍이라고, 오늘 경기대회가 이것을 실증해주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잘 훈련된 병사만이 싸움마당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울수 있으며 결전의 하루를 위해 훈련의 격달, 친남을 따와 함께 이어가는 군인의 참된 애국자이라고 하시면서 군인들은 항상

전쟁의 날에 마음을 얹어두고 훈련으로 새날을 맞고 지는해를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격전 전야의 침예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모든 사업이 철두철미 전투정치 훈련에 지향되고 부동되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군장병들은 훈련이자 군대이고 일백가지 군사과업중에서도 훈련이 첫번째라는것을 명심하고 훈련을 생활화, 습성화, 제철화하여 그 어떤 전투임무도 지립적으로 능숙히 수행할수 있는 일당백 싸움꾼, 적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백두산호랑이들로 역세게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경기

대회에서 1등을 쟁취한 조선인민군 제 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에 쌍인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경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과 경기대회참가자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전투에서 지휘하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몹소 경기대회를 지도해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믿음과 배려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훈련지, 화약내서린 훈련장마다에서 훈련혁명의 불길들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수행결사옹위의 총대, 조국수호의 총알을 더욱 역세게 버려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정보단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12일 무관단 단장인 로만 오스발도 히에네스 오르메가 무바공화국대사관 무관이 인민무력상인 북군대장 박영식동지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써여져 있었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양절에 즈음하여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말이 써여져

있었다. 또한 이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명예부리사장을 세출군이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본사기자

##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 수여식 진행

민족최대의 평일인 대양절에 즈음하여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일성소년영예상이 모범적인 초급청년동맹원회들과 청년동맹일군들, 청년동맹원들, 소년단원들에게 수여되었다. 수여식이 12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들이 전달한 다음 우리 당

의 청년운동사상과 병도업적용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청년동맹조직을 선군청년전위대로로 본본의 뿌리였으며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강국건설에서 위훈을 떨친 15개의 초급청년동맹원회들과 33명의 청년동맹일군, 동맹원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이 수여되었다. 수여식에서는 결의문들이

있었다. 또한 백두산철새위인들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적극 따라배워 지역적색을 겸비한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동감으로 훈련이 준비하기 위하여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99명의 소년단원들이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받았다. 수여식에서는 결의문들이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 경축행사대표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 경축행사대표들이 12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은 대표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병도, 특출한 정치신력과 고매한 혁명도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 올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끝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그들은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이 영원히 승리만을 펼칠수

있는 만년기쁨, 인민이 세상에서 무뎠없는 행복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건설의 륜본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결사 위인들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겨 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림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섰다. 주체혁명위업의 개척자, 병도자 이시며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의 림상을 우러러 그들은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결사위인들께서 생전의 모습

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펼쳐지고 우리 조국은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으로 온 세상에 더욱 위용차고있음을 마음속으로 이비 이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흥모의 정이 어린 훈장 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대양절 경축행사대표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업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대양절 경축행사대표들이 12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대표들은 지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키시어 주체혁명 위업관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대양절의 언덕에 올랐다. 그들은 력사의 초평길을 헤쳐시며 불패의 당과 국가, 군대를 건설하시였으며 이 땅위에 이인 위인의 숭고한 리념이 꽃피어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써여져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본사정치정보단